

감정(기분을 말해봐~!)



2023.3.27~2023.5.19
몸튼튼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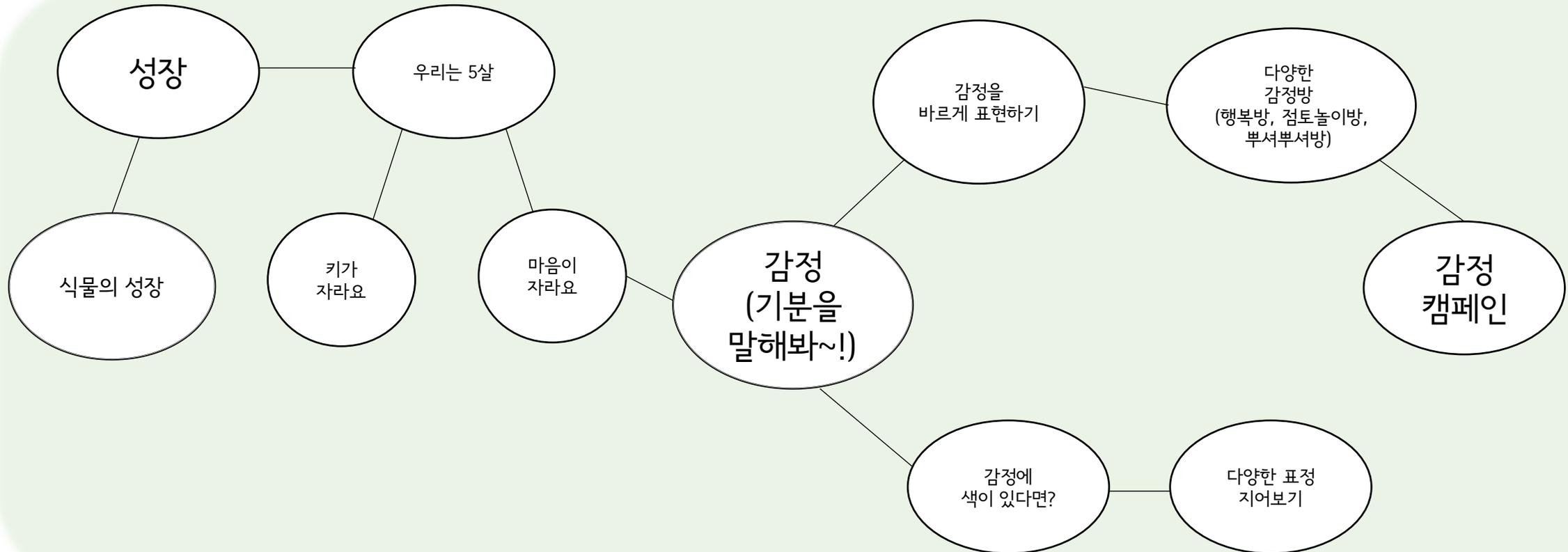
'감정'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

봄이 되어 유치원 마당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관찰하며 우리도 성장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기술과 마음도 성장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사회화 시기에 있는 유아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하며 지켜야 할 서로간의 규칙이나 예절에 대해 알아보며

'나'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느껴보며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해소하고자 '감정' 주제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.

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(3.27.~ 5.19.)



점점 자라고 있어요~



▲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관찰하며 식물과 곤충의 성장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. 식물들이 자라듯 우리도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나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



◀ 내 키만큼, 친구 키만큼 블록을 쌓아보며 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키재기 놀이를 합니다.



▲ '나' 와 '친구들' 의 어릴적 모습 사진을 보며 지금의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.



점점 자라고 있어요~



이제 혼자서
옷을 잠글 수
있어요!



제 얼굴을
만들어봤어요~!



우리는 5살!
숫자 '5'를
만들어봤어요~



"식물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있어요!"

봄의 변화처럼 몸튼튼반 친구들도 한 달 사이의 많은 부분들이 성장하였습니다.

양치하기, 옷(단추, 지퍼) 채우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

친구들은 놀잇감으로 숫자 '5'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 얼굴을
자연물로 표현해보며 '나'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

유치원의 다양한 규칙들을 잘 지키며 하루 일과를 수행해 나가고
못했던 것들을 점차 해내며 성취감을 느끼고 '나'를 긍정적으로
인식할 수 있었습니다.

나의 몸을 탐색해요.

우리 신체로도 여러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~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내어 내 몸을 탐색해 보고 친구와도 협동하여 소리를 내보았답니다. 나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.



▼ 인천어린이과학관으로 견학을 가서 인체를 탐험하며 각 기능이 담당하는 일을 알아보고 체험해보며 몸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.



신체를 조절해요~



◀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집중을 하지 않아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. 나의 몸의 소중하듯이 친구의 몸도 소중함을 알게 된 친구들과 신호등을 만들어 선생님의 신호, 친구의 신호를 잘 보고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 배워갑니다.



내 공을 받아~!!



▲ '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' '공 주고받기', '징검다리 건너기'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고 마음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며 상황마다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대처하고 나와 친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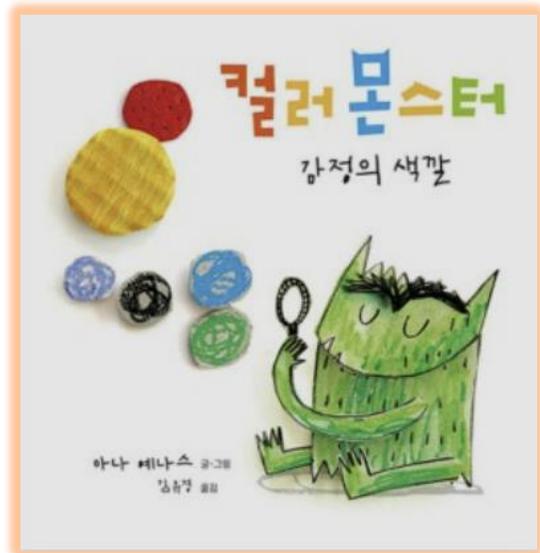
"신체를 조절해요."

아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만3세 친구들에게 자기 조절력(신체, 감정)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나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.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조절이 잘 안될 때도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경험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우리 모두 감정이 있어요!



▲ 여러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된 친구들과 다양한 표정 맞추기 활동을 해보며 표정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런 표정들을 짓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



◀ 감정에 관련된 그림책들을 보며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알고 어떨 때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.
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이야기 나누며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나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있으므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.

감정에 색깔이 있다면?



“화는 새빨간 불처럼 무지무지 사나워.”



“슬픔은 바다처럼 잔잔해.”



“콩닥콩닥 사랑은 두근거려.”



“평온함은 나무처럼 조용해.”



“컬러몬스터와 감정을 배워요.”

‘컬러 몬스터 : 감정의 색깔’이라는 그림책을 보며 색깔을 통해 감정을 이해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평소에 자주 접하는 기본 감정인 기쁨, 슬픔, 화, 무서움, 평온함을 어떤 상황에서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다양한 감정을 놀이하듯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요!

'다양한 감정방을 만들어요.'

함께 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감정들이 들기도 합니다. 다양한 감정들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해소하기 위해 감정방(점토놀이방, 부서부셔방, 행복방)을 만들었습니다. 각 방에 들어가 놀이하며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며 놀이가 끝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.



조물락~ 조물락~
점토놀이를 하니
마음이 편안해져!

부셔부셔방 ▶

◀ 점토놀이방



기분이 안 좋을 때
부셔부셔방에서만
부시며 기분을
풀어보자!

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요!



행복방에서 책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져~

친구들이 어떨 때 행복했는지 살펴보자!

속상하거나 슬픈 마음이 들 때 노란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표현하며 노란색으로 '행복방'을 꾸며보았습니다.





“감정 주제를 마무리하며”

감정 표현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. 감정 놀이를 하며 서로 다른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고 울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단어들 사용해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며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어른들도 간혹 조절하기 힘든 감정을 몸튼튼반 친구들은 놀이를 통해 배워보며 나의 감정이 소중한듯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함을 자연스럽게 인식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

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형님들에게도 알려주자!

